

변화와 혼돈속의 '한국가족' 지키기

황정욱(연합뉴스 기자)

지난달 선천성 불치병을 앓아온 손자를 질식사 시킨 할아버지가 구속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었다. 살해 동기는 아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또 아버지가 자폐증을 앓아온 자식을 죽이고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 같은 가족내 범죄는 이제 새로운 '범죄 트렌드', '범죄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다. 남편이 아들과 공모해 부인을 납치.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빼앗거나 카드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패턴도 빚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극단적 친족 범죄의 배경으로 가족 해체 현상을 지목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가족간 유대의 끈이 느슨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한 심리학 전문가는 "가족 개념의 변화로 가족 구성원간에 끈끈한 관계가 약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대 관계가 약화된 가정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까지 높아진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전통적인 가족 관계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인식이 현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불균형으로 인한 마찰과 후유증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는 가족 붕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핵가족화는 이미 지난간 이슈가 돼가고 있고 무(無) 자녀 가정이 부상하고 있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 갈수록 확산되는 현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또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져 만혼이 일반화돼 가고 있으며, 독신 가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부 내 일각에서 동거 커플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

고 있는 것도 저출산 현상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는 법을 정상적인 가족 개념에 계속 묶어둘 경우 이 같은 사회 변화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를테면 새로운 가족 유형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기존 가족개념의 붕괴 내지 해체를 대신해, 그 빈자리는 신(新)가족제가 메워갈 것으로 보인다. 동성 부부가 그 한 예다. 최근 들어서서 입양에 대한 개념도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가족 해체의 단면은 이혼 만연 풍조에서도 드러난다. 이혼율은 2001년 12.5%, 2002년 7.6%, 2003년 15.0% 등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16년만에 처음으로 이혼율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인식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년 이상 함께 살았던 부부가 늘그막에 헤어지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18%로 10년만에 2.5배나 뛴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표출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늙어서 혼자되는 '고독의 섬'에 정박하는 노인 고립은 대부분 가족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게 된다. 가뜰이나 가족의 구성단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가구'가 가족의 한 유형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방계 가구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3대(代) 거주 형태인 '가구주+자녀+부모' 가구가 1980년에는 전체 친족 가구의 39.2%였지만 2000년에는 15.3%로 급감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효 사상도 자연스럽게 퇴조하고 있다. 1명의 자녀가 2명의 부모를 모시는 것이 현실적,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모들도 과거 식의 '자식 봉양'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인식도 팽배해 있다. '손자·녀 돌보기'에 묶여 살기 싫다는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구 구성원 축소에 따라 부모-자식간 수평 관계가 확산되면서 자녀의 노인 학대로 이어지는 경향까지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7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접수사례를 분석한 데 따르면 노인 학대로 신고된 2천38건 가운데 아들과 며느리가 가해자인 경우가 70%를 넘었다. 같이 산다 하더라도 부모는 구박당어리일 뿐인 셈이다.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의 인터내셔널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이 3만 5천447건으로 전년도 2만5천658건보다 38.2%가 늘어났다. 한국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맺은 혼인 상대국은 중국이 전년도보다 38.5%가 늘어난 1만8천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75.5%가 증가한 2천462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제 결혼의 상당수가 농촌 총각의 탈(脫) 총각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가정내에 새로운 문화·언어의 유입은 우리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물론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편인 이들 가정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

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족은, 그 구성원에게는 어찌보면 마지막 보루이다. 험한 직장생활 속에서 심적 위안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출발점을 제공하기도 하고, 경제적 가치와 가정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의 기본 골격이기도 하다. 자녀로선 부모로부터 무한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등지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족 친화적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족 해체, 가정 위기로 대변되는 사회 기본 단위의 가변성 증대는 사회 변동의 폭과 범위를 증대시켜,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과 대가를 요구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하게, 아니면 우리 사회의 급속화하는 변화의 흐름이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하다. 기존 가족관계의 약화 내지 붕괴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을 창출토록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는 갈등과 대립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싶다. 어차피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바에야 시대 철학에 맞는 건강한 가족관계 구축을 위해 모두의 힘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의 원천이 되고, 건강한 국가, 건강한 세계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